

열면서 닫는 번역의 이중 과제 수행한 동양의 근대

동양적 근대화의 길과 번역의 길

김성기 | 문화비평가

번역은 우리 사회에서 별다른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번역을 통해 근대화 과정을 들여다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서세동점에 문화적으로 응전해온 식민지국의 흔적이 번역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지식인들은 자신을 여는 동시에 경계를 긋는 번역의 이중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문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는 그 동안 이 둘 사이에서 어정쩡한 포즈를 취해왔다.

번역, 그리고 번역하기. 이 말과 행위는 우리 지식사회에서 그리 대접받지 못한다. 특히 '서구의 수입 이론을 거부하며 나/우리의 이론을 추구한다'는 이들에게 이 말은 원서 혹은 원전 앞에서 받아 쓰기, 베끼기, 심지어 표절이란 부정적 함의마저 지닌다. 번역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기제임에도 우리에게 그것은 여전히 그늘진 곳에 자리할 따름이며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기미는 없어 보인다.

고개 숙인 번역, 대화하는 번역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번역은 원전, 원서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물론 그 원전의 출처가 20세기 초반까지는 주로 중국과 일본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으로 바뀌었는지 언젠가 우리 문화에서 번역은 늘 고개를 숙이며 지내왔다. 그렇기에 우리 번역에서는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는' 문화적 실천이라는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 동양의 근대, 그것의 의미와 현주소를 번역의 역사를 통해 조망하려는 까닭은 무엇인가. 19세기 이후 동양이 맞은 이른바 서세동점의 역사가 그 배경이다. 서양 근대문명의 파고가 거세게 밀어닥칠 때 그에 대한 문화적 응전의지가 바로 번역의 역사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한중일 삼국에만 국한하더라도 번역은 그런 서양 문명과 전통 문화의 대결이라는 문화적 긴장을 품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나를 위협하는 저 거센 파도의 정체를 알자' '근대 문명의 역사를 살펴보자'는 당대의 사회문화적 요구 속에서 번역의 근대적 위상이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번역이 19세기 아시아 '후진국'의 근대화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통보전의 중국과 적극수용의 일본

그런데 동양 삼국이 음악평론가 박용구의 표현대로 '어깨동무 문화권'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다른 근대화의 길을 걸었다는 점은 지적돼야 한다. 그 차이는 다시 번역 문화의 형성 과정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애초 자신이 '중화이자 보편'인 탓에 주자학이라는 사상적 전통의 기축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서양 오랑캐의 물리(物理)' 보다는 '중화의 도리(道理)'가 앞선다는 자신감으로 서세동점의 충격에 맞서 어느 정도는 자기 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근대 중국의 지식과 사상이 정체에 갇혀 있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서양문화의 도전에 응해 한편으로 탄탄한 준비를 했는데, 엔 후이(嚴復)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그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토마스 헉슬리의 《천연론》을 비롯해 스펜서, 다윈, 아담 스미스 등 서양의 근대 고전을 한역하는 데 일가를 이룬 바 있다. 이런 업적을 토대로 이후 강유위, 양계초, 호적 등으로 이어지는 중국 개화파 지식인들의 지적 계보가 그려질 수 있으며, 중국의 5·4 혁명은 그 한 절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마루야마 마사오와 가토 슈이치의 대담집 《번역과 일본의 근대》(임성모, 이산)가 보여주듯, 메이지 시대는 '번역의 시대'라 일컫는다. 당시 번역은 '외국인 교사, 유학생, 시찰단'과 더불어 근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양사회를 모범으로 한 근대화의 전체 가운데 하나가 광범위한 서양 문헌의 번역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메이지 정부가 앞장서기도 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데, '서구 근대문명의 수용을 통한 문화적 자립'이라는 목표가 이미 뚜렷했다는 말도 된다. 이에 덧붙여 주목할 점



인문학 위기론이 그 내용을 갖추고 전망을 제시하려면 번역을 소홀히 해온 문화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사진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서가.

은 '번역을 통한 문화적 자립'이라는 번역문화가 메이지 시대에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며 에도 시대에까지 이르는 너른 폭과 시간적 깊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오규 소라이 같은 유학자는 이미 '주자학의 일본적 전개'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 문화 자립화 과정에서 축적된 사유가 서구문명을 수용한 계몽사상이 후쿠자와 유키치에 이르러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 같은 문맥에서 뉴턴의 물리학과 토크빌의 민주주의론이 소개되고, 또 토마스 홉스와 콩트, 스펜서 등의 대표작들이 번역됨으로써 일본은 문명개화와 민권운동의 사상적 자양분을 흡수하게 된 것이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의 사상》(김석근, 한길사)에는 '개국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흥미로운 평이 나온다. "자신을 바깥, 즉 국제사회에 '여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해서' 자신을 국가=통일국가로 '선을 긋는다'는 양면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진술이 그것이다. 이 양면의 과제에 직면한 것이 당시 동양적 근대의 운명이었다는 뜻인데, 이는 번역의 과제로 그대로 치환될 수 있으리라. 중국의 번역문화는 전통문화의 사상적 기축 위에서 근대와 접목시킬 수 있는 자생적 연계점을 확보하려고 했으며, 일본의 경우 '에도 시대' 이래 타문화와의 폭넓은 교류 경험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근대 문명의 쇄도 앞에서도 실용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 가능했다. 어떤 측면에서 일본은 중국보다 더 유연하게 근대화의 열차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인문학의 위기, 번역 문제부터 되새김질해야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번역은 문화적 근대화와 어떤 연관을 맺었는가. 개화기 이래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우리 지식사는 과연 번역문화를 갖고 있었는가. 외관상으로 우리는 일본의 근대화 경험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번역의 역사 자체는 거의 부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 한문문화의 근대화에도 실패했을 뿐더러 서양문화의 실용적 번역에도 게을렀

다. 이런 정황이 이미 20세기 우리 지성과 학문의 파탄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철학자 김용옥은 "우리나라의 20세기는 학문의 황무지, 자생적 축적이 없는 거의 텅 빈 시간의 창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나는 이 주장을 비판이나 체념이 아니라 당찬 선언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20년 전 이미 '번역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한 바 있다.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통나무)는 그 단적인 예다. 그는 개화란 '한자문화권으로부터의 탈출' 내지 '한글문화로의 이행'을 의미했음에도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를 통해 접촉한 중국 고전이 20세기 중엽을 지나서야 우리말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지식사의 근본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근대화의 길과 번역의 길은 같은 궤적을 그리는 건 아닐는지. 근대화 과정이 파행적이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적·사상적 궤적 역시 온전하지는 못했을 터다. 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 우리 지식사회에서는 널리 의식되지 못한 채 고사하고 말았는데, 그런 문제를 '무의식권'에서 '의식권'으로 건져낸 장본인이 바로 김용옥이었다.

헌데 그의 문제제기는 단순히 국학이나 동양학계에서만 국한해서는 안된다. 그가 주창하는 우리 번역의 과제에는 '서양문화권의 우리말화'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주요 서양고전의 번역이 한참 뒤져 있다는 것은 단지 시간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서양의 원전을 우리말화하지 못하는, 그로 인해 '일상 언어'의 세계에 그 서양의 문화를 담아내 자기화하지 못한 우리 학문의 내적 파행성을 아프게 건드린다.

현재 우리 지식사회에서 일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인문학 위기(몰락)론이 그 내용을 갖추고 전망을 제시하려면 김용옥이 제기한 '번역 문제'부터 되새김질해야 한다고 본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원전의 번역 부재는 단지 원전의 우리말화 능력의 미숙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시대 지식 정보의 수용과 활용 면에서도 뒤지고 있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원전 번역이 없는 창조적 논문 쓰기'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 지식 문화의 자산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간 '외국 유학'을 둘러싼 고정관념에도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지식사회의 고질병이 새삼 도드라지는 것 같다. 우리는 외국 유학하던 국내에서 공부하던 학문 행위를 주로 지위 상승 수단으로 여길 뿐 학문 자체의 문화적 고려는 아직까지 매우 취약하다는 것, 이게 21세기 우리 학문의 미래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게 하는 결정적인 대목이 아닐까 싶다. '엘리트주의의 청산과 진정한 근대 시민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학문적 노력이 곧 번역의 핵심적 의미라는 김용옥의 주의주장은 지금부터라도 좀더 진지하게 검토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게 내 결론이다. ■

김성기씨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현대사상》 주간을 역임했고, 현재 문화비평가로 활동중이다. 저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비판사회과학》 《패스트푸드점에 갇힌 문화비평》 등이 있다.